

‘ 전면금지’ 초중운동부 합숙 다시 고개

단체종목 중심 광주 4곳이상 상시 합숙

학교발전기금 아닌 학부모 짚짓돈 운영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면금지한 초·중학교 운동부 합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운동부 운영비 또한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학부모들의 ‘짚짓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로 제한하는 한편 학기당 3회 이상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 W·S 고등학교 축구부는 상시합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합숙 전면 금지조치에도, 일부 학교가 기속사를 가장한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의 예매한 예외 규정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원거리 학생이나 학교장 판단 아래 학생 선수의 숙식을 위한 기속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도심권 초·중학교의 경우 위장 전입한 운동부 학생의 숙식 해결을 위해 음성적으로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해 운용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초·중학교 운동부가 학부모회의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정성 광주시의원은 “교과부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와 집을 오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학기중 합숙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실상은 음성적으로 합숙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미FTA 장외공방만...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장 접거가 9일째를 맞은 8일 여야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기준을 둘러싼 극심한 입장차를 한 치도 줄이지 못한 채 장외공방만 벌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새야구장 주차장 너무 좁다”

진선기 시의원 “당초 계획보다 550여면 부족해”

진선기(민·북구1) 광주시의원은 8일 “재정자립도가 42%인 광주시가 새 야구장 시공사를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턴키입찰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택한 것은 예산낭비 사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턴키입찰 방식을 통해 새 야구장 건설비가 879억원으로 책정됐다”며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했다면 전국 평균 최저가인 694억원으로 185억원 가량 줄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는 애초 주차장이 3000대 가량으로 보고, 지하주차장과 주변에 4개의 외부주차장을 건립해 1708면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하주차장만 건설해 1150면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주차장 확대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기단축을 위해 턴키입찰방식을 도입했다”며 “최저가입찰방식은 사업비는 줄일 수 있으나 공기가 다소 소요되고, 최저가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 “두 개 컨소시엄만 응찰했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말했다. 시는 또한 “경기장 주변으로 주차장을 분산 배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공람공고와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추가 주차장 건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새 야구장 시공사 입찰에 응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총괄경점 92.68점)과 성지건설 컨소시엄(84.07점) 중 투찰물과 설계평가 등을 거쳐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檢, FTA과담 구속수사 방침 시대착오”

정권권 일제히 비판

정권권은 8일 검찰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과담’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한미FTA 관련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법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

상”이라며 “이런 의견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겠다는 검찰의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짓누르겠다는 구태이며, 한미FTA에 대한 찬반토론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검찰의 과잉대응은 청와대가 한미FTA

비준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부의 주구(走狗)를 자처해 반민주적 공포정치에 가담한다면 자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은 구속수사 방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허위 글을 게재한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pk@k

광주도시공사 부적정 업무 수두룩

공사비 과다지급 등 17명 징계처분

광주도시공사가 공사비 과다 지급 등 부적정 업무 처리로 인한 감사 적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광주시 감사에서 10건의 부적정 업무 처리 사실

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파면 1명, 감봉 2명, 경고 3명, 주의 11명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적발 내용으로 하남 2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비 1억6500만원을 건설했던 2곳에 과다 지급했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책

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골재사업자 적격심사 결과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신항 국민임대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도감독과 입찰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남지하상가 1공구 재계약 체결 연장사실을 소유주들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았고, 축소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부당하게 준공 처리하고 금융비용(이자)의 회계처

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도시공사 팀장급 등 관리직 직원 20여명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데도 노조활동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도시공사 소유의 염주수영장 강사는 회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파면을 당하기도 했고, 모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전액 환수하는 등 감사원과 정부감사 등에 적발된 업무는 모두 바로 잡았다”라며 “타 시·도 공사보다 감사에 적발된 업무가 많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에너지研·전기研

그린에너지 상생발전 협약

광주시는 8일 국내 최고의 에너지 연구기관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황주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호용 한국전기연구원장이 8일 광주시청에서 그린에너지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황주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호용 한국전기연구원장이 8일 광주시청에서 그린에너지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 소재)은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및 융합소재분야 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시험평가사업을 주로 맡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창원 소재)은 전기 및 융합분야 선도기술 개발사업, 전기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시험인증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태리소파 식탁/좌탁 30%

11월 신상품 포함 2011 최대특별가 판매 (12월18일까지)



골드소파 모방되지 않은 오리지널 20kg골드소파



기능소파 이태리가죽과 독일기능의 최고급소파



골드식탁 국내최저가 판매, 밀라노 디자인 특허



앤틱식탁 보조판 연결로 10인용으로 간단사용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동구 경동 58-15 광동로터리 홍스페이스가구빌딩

홍은 수입원/직수입 → 도매가 판매(전남에 한함)
서랍안이나 가죽이 역한 냄새가 나면 독성있는 중국산입니다.
전국 고급가구의 90% 이상은 중국산입니다.(수입신고서 확인)
홍상품은 100% MADE IN ITALY 입니다 SINCE 1990

Canon 스토어 광주점 OPEN

오픈기념
특가 한정판매!!

이벤트 기간 : 11월 15일까지



EOS 바디



+ EF 렌즈



+ EF 렌즈

= 더블 캐시백

- ▶ EOS 500D 바디
소비자 ₩818,000 → ₩555,000
- ▶ EOS 500D (18-55렌즈포함)
소비자 ₩918,000 → ₩650,000
- ▶ IXUS 300HS+CASE
소비자 ₩429,000 → ₩262,000
- ▶ IXUS 310HS+CASE
소비자 ₩399,000 → ₩291,000
- ▶ POWER SX30IS+CASE
소비자 ₩599,000 → ₩495,000

각 관공서, 기업체, 납품전문업체 및 도매

Canon 스토어 광주점 TEL.062)383-3000
- 광주시 북구 임동 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 -